

무용참여에서 공공 장소의 기능과 공동체 돌봄의 의미

*
황 정 옥

목차	Abstract
	I. 서론
	II. 무용 참여와 공동체 돌봄
	III. 참여무용과 공공 장소의 관계
	IV. 결론
	참고문헌

*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강사
논문투고일 : 2022.8.10.

논문심사일 : 2022.8.13.

계재확정일 : 2022.9.09.

The function of the public place and meaning of community care in dance participation

Hwang, Jeong-ok · Kyungso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value of care that has been changed in the social system and consider the meaning of community care internalized in community dance. Therefor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ion in dance and the accessibility of community dance, this researcher considered the communal meaning of community dance in the public place through relations between social care and the public place.

This study begins with the discussion that if the accessibility of community dance is the function of care as an institutionalized social service, participants' dance behavior (participation in dance) is characterized as community care and the communal function of community dance has roles as social care, and its contents are as written below.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dance implies the alternative characteristics of social care. It is because they imagine a different kind of system and order with self-reflective attitudes within their lives shared through participation in dance and the potential of community dance to promote transition has roles as community care.

The institutional accessibility of community dance is in line with the physical function of the public place, and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on works as empathy at this time. Participation in dance at the place where various relationships coexist forms an intimate community as a stable network to recognize codependent relationships at the equal position where individuality is not damaged at all.

Dance in the system of community dance is characterized as community care, and community dance is associated with the social system with the function of community care.

<key words> social care, community care, community dance, dance participation, arts cultural education, self-reflection, community function, public place

<주요어> 사회적 돌봄, 공동체 돌봄, 참여무용, 무용 참여, 문화예술교육, 자기 성찰, 공동체 기능, 공공 장소

산업화사회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우리들의 기억은 기후 위기,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돌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저가 되었다. 사회복지 제도에서 배제된 대상에게 제공된다고 여겨졌던 돌봄이 제기되는 사회문제에 따라 대상 집단을 확장하면서 제도보다는 유연한 사회적 돌봄과 돌봄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제기되고 있다.

돌봄은 사회복지제도로 본다면 돌봄 서비스를 의미한다.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던 돌봄 서비스는 2000년대부터 돌봄 공동체로 성격을 전환하고 있다. 이는 문화복지 분야에서도 유사한 정책지원 체계로 드러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작된 문화예술교육은 정책 초기 제한적인 자원 구조 내에서 참여자를 대상화하여 접근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출발했다. 그렇기에 보편적 문화복지로 전 생애, 전 사회에 걸쳐 문화예술교육의 확장성¹⁾을 목적으로 변화해 왔다.

최근의 팬데믹은 교육, 보육, 장애, 의료, 노동 등 사회적 돌봄 기능이 과편화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으며 돌봄을 제공하는 자와 받는 자 간의 관계, 공동체 돌봄의 필요성 제기, 정상성과 낙인²⁾, 지역성과 자기 선택권의 확장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복지영역에서의 돌봄의 공동체적 관점에서의 전환은 표준화되어 있는 서비스 체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³⁾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사회 서비스로서의 돌봄 체계에서 공동체 돌봄의 등장 배경에 초점을 두고 무용참여에 내재된 공동체 돌봄의 의미와 역할을 탐색하고자 한다.

“돌봄은 사회적 역량이자, 복지와 번영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살피는 사회적 활동이다. 무엇보다도 돌봄을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을 인지하고 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The care collective(2021)의 논의는 무관심해진 공동체적 맥락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특히 (지역사회에서)공유하는 삶을 의식하는 공공 공간의 파괴⁴⁾에 대한 경각심이기도 하다.

1) 초기 사회문화예술교육 영역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접근 방식은 세분화 전략이었다. 대상 집단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방식(프로그램)으로 접근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성은 이후에 공동체와 시민을 참여 대상으로 하는 ‘생활문화공동체 지원사업’, ‘시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으로 드러났다.

2) 김현경(2022)은 현대 사회에서 낙인으로 취급되는 속성들을 신체의 괴물스러움, 정신적인 면에서의 결함, 특정한 인종, 민족, 종교에 속해 있다는 사실 등으로 제시한다.

3) 김은정(2015),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에서 공동체적 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46(2), 153-176. 참조.

4) The care collective는 『돌봄 선언』에서 신자유주의 이후 기업과 민간 사업자가 공공 부문을 사유화하면서

동시대 무용은 “체제에서의 무용으로 사회 문제 해결책으로의 체제 변화와 그 새로운 체제에 존재하는 무용이다”(한해리, 2021b:49). 본 연구는 변화하고 있는 체제에서 무용 참여가 갖는 의미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불안과 소외, 무관심의 상태가 지배적인 동시대에 차이와 차별의 경계가 상호의존적인 돌봄의 관계를 와해시켰다는 논의로부터 무용 참여의 관계와 성격을 탐색하고 체제로서 참여무용이 갖는 공동체 돌봄의 의미와 무용 참여의 공동체 돌봄 성격을 공공 장소의 의미로 고찰하고자 한다. 변화한 사회 시스템에서 그간 강조되지 않았던 공공 장소의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복지와 제도, 교육과 문화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참여무용의 사회적 가치를 탐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무용 참여와 공동체 돌봄

몸의 학교, dance exchange 등은 도시·산업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참여무용 사례이다. 사회적 문제 해결로서 불안의 상황에 있는 불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혹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요양원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용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안하는 사회적 행위로서의 무용행동이라 볼 수 있다.

독립적인 요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사회 구조의 관계에서 목적이 결정되고 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함께 변화하는 동시대 무용은 무용 그 자체의 목적을 넘어 삶의 접근성으로 일상에서의 행위와 무용에서의 행위를 가로지르며 고유한 영역이 각각 어떻게 자리하고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며 소통될 수 있는지를 인식(느낌)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교육적 의미를 담보하고 있다.

근대사회에서 시민의 자유가 중요했듯이 예술의 독립적인 자율성이 강조되면서 예술은 ‘예술을 위한 예술’로 사회 체제에서 위치했고 이후 ‘사회 예술(social arts)’이 등장했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공고히 하는,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는 비평적 용어로서의 사회 예술은 신뢰, 배려, 나눔, 참여, 소통, 포용, 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지향한다. 사회예술은 공공예술, 비판예술, 행동예술, 공동체예술을 포괄하는데 그 중에서도 공동체 예술(community dance)은 상호부조, 협력, 공동체성을 강조하며 사회 참

공공 공간이 파괴된 것에 우려를 표한다. 공유되는 삶의 훼손은 무관심한 공동체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사회적 돌봄의 결여로 이어지게 된다고 본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목적아래 세계의 공공 공간은 폐쇄되었으며 그 결과 사회적 돌봄 기능은 약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여 예술 행위로 전환되고 있다.

사람들 간의 소통의 결과인 사회는 일정한 경계가 성립된 영토에서 문화를 공유하며 제도와 조직을 형성하게 된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대중사회, 탈산업사회, 정보화사회, 탈현대사회, 탈성장사회 등으로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해 왔으며 생태·환경 사회를 맞아 상상적 공동체로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이 확장되었다.

흔히 사회적(social)이라고 할 때 시장 매커니즘으로 해결 할 수 없는 문제와 관련된 의미 또한 내재한다. 따라서 사회적 권리, 사회 문제, 사회 정책과 같은 용법이 통용된다. 경제, 정치, 종교 등으로 배제 혹은 소외된 사람들의 사회 권리에 관한 인식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 발견을 전제로 한다. 신자유주의가 팽배한 시대의 끝자락에서 세계는 상호작용의 질서 차원에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개인의 존엄(dignity)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을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했다.

삶의 혜택으로 예술(무용) 용례가 일상화된 동시대는 이처럼 구조적인 환경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며 상호작용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는 체제가 개인의 의지와 행동을 희석하지 않는지 주목하는 것이다.

사회정책의 실시는 사회의 경계를 확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김현경, 2022:146).

사회정책 관점에서 본다면 상상적 공동체 또한 민족 국가의 경계와 같은 공간을 생성하고 공유하게 된다. 정책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된 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원(세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때때로 사회정책은 낙인과 배제의 기저로 작동하기도 한다. 혜택을 받는 그들이(수혜자) 사회적 약소자, 혹은 취약자라는 것을 명문화하기 하기 때문이다.

문화정책 지원사업 경우에도 혜택의 대상을 범주화한다. 때론 유형화·대상화되어 버린 지원(참여) 대상(정책 수혜자)을 새롭게 발견하길 권유하기도 한다. 기존 지원사업에서 포용하지 못했던 대상을 발굴하여 제안토록 하는 사업이나 정상 이데올로기로 규정화된 지원 대상을 새로운 발견과 해석으로 다루고자 하는 지원사업, 사회취약계층을 핵심 참여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⁵⁾ 모두 지원 대상을 명시화하는 과정

⁵⁾ 2022년 신규사업에 해당되는 “사각지대 문화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경우 타 사업군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참여자를 발굴, 사업 대상자로 제안하길 권유한다. 2021년부터 추진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가족여가 프로그램”사업의 경우, 정상 이데올로기 관점에서의 가족이 아닌,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가족 유형을 사업대상으로 제안해야 한다. 2022년 시작된 “꿈의 무용단”지원사업은 사업대상 참여자 중 취약계층을 50%이상 확보해야 하며 이를 증빙해야 한다. 이때의 취약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한부모/다문화/다자녀 가정의 자녀, 장애인/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이동복지시설 제원자, 특수교육대상자, 소년·소녀 가장, 도서벽지 거주자 외 학교장/지역단체장 추천자(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필요),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이다.

에서 사회적 경계와 위계를 명확히 드러내 보인다. 즉, 보편적 돌봄⁶⁾의 영역으로 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회적 혜택으로서의 제도(정책)는 때때로 선택지를 하나 더 제공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 했다고 주장한다. 수많은 사회적 돌봄 중 교육 영역에서의 돌봄 정책⁷⁾ 또한 이와 같다.

탈영토화된 시대를 맞아 사회적 돌봄은 공동체 돌봄을 지향하며 공동 자원, 공공재로서의 돌봄 커먼즈commons⁸⁾의 실현을 기대한다. 사회정책, 즉 기존의 사회 서비스의 개념을 넘어서려고 하는 공동체 돌봄은 지난 역사성을 지우고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젠더, 이념, 지역, 세대의 경계적 위치를 극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관료화·제도화된 체제에서 취약계층의 의미는 그들의 취약함이 아니라 체제(사회 시스템)가 만들어낸 박탈과 배제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술(무용) 참여는 경계의 안과 밖, 경계라는 위치가 아닌 애초에 존재하지 않은 경계(존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무용 참여 경험은 공공재로 작동하기 위한 접근성을 기반으로 사회 문제를 탐색하고 성찰한다. 사회정책에서 함의되는 취약계층이라는 용법을 더욱 더 공고히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만나고, 교류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며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모든 이들과 함께하는 가치(태도)를 공감하는 것이다. 아울러, 체제가 형성한 박탈과 배제를 문제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논쟁으로 교육프로젝트 목적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공공재(공공 자원)인 참여 경험은 일상의 공간에서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언제나 접근 가능한 것 뿐 아니라, 접근한 장소에서의 경험은 역사적 맥락 찾기로(전 지구적 역사성)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선택지를 제안하고 선택하라는 시스템 자체가 오류임을 알아차리는데(인식) 최적화되어야 한다. 이는 곧 체제 너머의 실존적 삶의 공유를 우선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으로 읽힌다.

⁶⁾ 돌봄을 삶의 모든 수준의 중심에 놓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구 자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종류의 돌봄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는 사회적 이상으로서 보편적 돌봄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⁷⁾ 역사적으로 (교육과 보육으로서의)돌봄 기능은 가족, 여성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공적 영역에서 돌봄이 작동하기를 기대하였고 정책으로 의제화되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로 변화해 갔다. 지역아동센터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성된 시설로 사회적 돌봄의 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민간이 떠안고 있다. 학교 돌봄의 필요성이 제기되던 당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였지만 결국 사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구호 아래 각자의 능력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토록 함으로써 공적 영역이 작동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선택지를 하나 더 제시하는 형태를 띠었다.

⁸⁾ 백영경(2022:327)은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선 공통영역으로서 커먼즈가 필요하다 본다. “현재 정치에서는 자각한 시민들이 스스로의 삶의 자원을 자신의 손으로 책임지겠다는 비전으로 이해하여, 공유와 협동, 호혜성과 사회문화적 변화에 기반 한 새로운 사회적 실천과 가능성의 공간임을 강조하기도 한다”. 『복지와 커먼즈』재인용 참조.

무용 참여는 대안적 성격으로서의 공동체 돌봄이다. 대체재로서의 대안이 아닌 사회 시스템의 공백(간극)을 자율적인 개인 선택으로 해결하는 잠재성을 대안적 성격이라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무용 참여를 통해 공유되는 삶속에서의 자기 성찰적 태도로 또 다른 시스템과 질서를 상상하고 전환을 도모하는 의미에서의 잠재성이라 할 수 있다. 참여무용의 전제 조건이 되는 공동체는 인간관계로 구성되는 하나의 체제이며 이와 관련된 개인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참여무용의 접근성이 제도화된 사회 서비스로서의 돌봄 기능이라고 한다면, 참여자들의 무용행위(무용 참여)는 자기 돌봄의 성격(기능)을 가지며 참여무용의 공동체 기능은 사회적 돌봄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성찰의 무용구조는 개체성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에서 개체성들 간의 차이를 자각하는 무용 행위과정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개체성들 간의 사이에서의 관계 맺기는 무관심하거나 냉담하지도 그렇다고 사심도 없는 마음의 상태, 집중보다는 관심으로 대칭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한혜리, 2021b:56).

‘함께하기’의 참여무용은 자기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정체성 발현을 참여(경험) 구조로 삼고 있기에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살피는 성찰적 태도로서 돌봄의 기능을 지닌다. 한혜리(2021b:58)의 논의와 같이 동시대 무용은 “문화 통찰력과 충분한 신의를 가지고...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는 무용의 구조로 공유”하는 무용(커뮤니티댄스)을 제안하고 있다.

III 참여무용과 공공 장소의 관계

주체적인 개인의 소통 공간이자 물리적 현상의 공간을 사회라 지칭한다면 동시대에서 예술의 접근성은 참여자를 대상화하지 않는 의지를 내포한 의미를 갖게 된다. 소외와 배제 혹은 결핍으로부터 기회 제공을 우선하는 형평성(equality)은 참여무용인 커뮤니티댄스의 실천 원리이자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포괄하는 이념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은 감상의 차원에서 참여로 전환된 20세기 문화정책의 이념적 토대 위에 혜택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참여 경험을 공유하고자 했다. 사회적 활동(참여)인 참여무용은 경계에 위치해 있는 이들을 우선으로 그들

의 삶에 필요로 하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돌봄 기능으로 무용 참여를 제안한다. 도시·산업화 시대의 참여무용은 개인과 개인들의 공동체에 안정감을 제공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재통합하는 전략을 구사했으며 양로원,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특정한 공간(시설)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이들을 우선으로 참여무용 대상자를 상정해 왔다.

낙인자(the stigmatized)와 정상인(the normals)의 만남은 어떤 종류의 기만을 수반하고 있다. 정상인은 낙인을 포용하는 듯한 몸짓을 한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낙인자가 자신과 동등한 인간임을 믿지 않는다⁹⁾(김현경, 2022:122~123).

김현경(2022)은 배제와 오염, 낙인의 공간 구조를 논의함에 있어 Goffman, E.의 총체적 시설(total institution)을 언급했다. 정상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물리적 장소이자 현상으로서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여 이들을 ‘낙인자’로 ‘총체적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수많은 시설은 전통사회에서 가족, 종교, 공동체 등이 담당했던 돌봄의 역할을 사회제도 영역(공적 영역)으로 이관한 결과였지만 온전하게 이행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에 존엄의 관점에서 돌봄이 진행되기보다 박탈과 회복, 재생과 갱생 등의 관계로 시설의 장소성은 얼룩지기도 했다.

존엄을 인정받으며 모든 이들이 함께하는 관계를 구분 짓는 정치적 장치는 무용 참여 경험의 접근성을 제한한다. 시설에 정주하는(혹은 이용하는) 개인들의 삶을 외부의 시선으로 일반화하는 과정(정치적 장치)은 그들의 삶을 왜곡시키고 사회적 낙인과 편견의 요소를 강화하고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동시대 참여무용은 참여자를 구분 짓지 않고 함께하는 경험에 초점을 둔다. 공공 장소의 의미로 함께하는 경험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 권리에 관한 인식의 변화는 시설 이용자들을 사회적 관계망-시설 밖-으로 확장하는 프로젝트¹⁰⁾에서도 포착된다.

시설에 있는 사람(person)¹¹⁾들뿐 아니라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현상의 공간(사회)에

⁹⁾ ‘사회’를 대표하여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는 정상인들은 자기 앞에 있는 낙인자들을 아무나 덩석 꺾어냄으로써 자기가 그들에 대해 아무런 편견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과시하려 한다. 하지만 정상인들이 이렇게 낙인자들의 몸을 함부로 만질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관계의 불평등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낙인자들 편에서, 이러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일종의 의무이다(김현경, 2022:123).

¹⁰⁾ 2022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정기프로그램 이외 특별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체계가 재정비되었다. 특별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와 운영단체의 협의 하에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지역사회 공공 공간(공동체 기반시설)에서의 프로그램 운영을 선택한 운영단체와 지역아동센터가 많은 편이다.

¹¹⁾ “사람임은 일종의 자격이며,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사람과 인간의 다른 점이다... 어떤 개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사회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하며, 그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김현경, 2022:31).

있는 개인(person)들 또한 자신의 상징적 자리¹²⁾를 필요로 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본연의 모습과 사회적 관계에서 인정되는 정체성의 왜곡과 부조화가 발생할 때 개인은 상징적 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사적 공간을 넘어 공적 공간에서의 환대를 주장하는 시대 의식이 발화된 이유이기도 하다.

Levinas, E.는 “자아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을 돌볼 윤리적 의무가 있다”(The care collective, 2020, 정소영 역, 2021:76)고 주장한다. 그리고 Derrida, J.는 “‘낯선 사람’에 대한 무한한 환대의 윤리를 옹호했다”(76). 그렇기에 동시대는 공적 공간에서의 모든 사람들은 의례적으로 동등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타자에게 기꺼이 자리를 내어 주는 행위, 즉 환대를 장소의 권리로도 해석한다.

Oldenburg, R.(1989)은 집도 직장도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고 교류하며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야말로 사회를 유지하는 토대라고 보았고, 이를 “제3의 장소¹³⁾”라고 지칭했다. 이때 개인들은 공공 장소(함께하는)에서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와 민주주의의 포용성을 연습(학습)한다. 각기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의견과 이해를 조정하며 공감하는 상징적 자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상징적 자리는 개인이 더 큰 공동체에 기여한다는 믿음, 공동체가 개인을 소외하지 않는다는 신뢰로부터 단단해지고 선명해진다. 무용 참여의 순간은, 각기 다른 존재들이, 시간을 공유하면서 소통하고 이해하며 공감하는 자리이다. 참여무용은 독립적인 개인의 움직임 주체를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접촉(시간적, 물리적, 정서적)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와 차이를 확인(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회적 만남이기도 하다. 사회관계에서 상실되거나 왜곡된 상징적 자리를 무용 참여를 통해 온전히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혹은 비대칭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Hertz, N.(2020)은 일상적인 대면 상호작용이 서로의 공통점을 더 잘 보이게 만든다고 본다. 이는 신뢰와 책임, 연대감을 안겨준다. 또한 대면 상호작용은 공명과 공명의 기폭제가 된다. “공명은 서로 다른 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특별한 경험과 문화를 상호 교환하는 장소에서 번성”(Märtin, D., 2021, 배명자 역, 2022:324)한다. 그리고 “전혀 다른 능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을 때 공명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37).

¹²⁾김현경(2020)에 의하면, 상징적 자리는 몸이 장소(place)들과 관계 맺는 관계 속에서 점유하게 되는 위치(position)를 의미한다. 그렇기에 사회 안에서 우리가 갖는 자리가 곧 장소들에 대한 권리며 환대의 권리로 해석해 볼 수 있다.

¹³⁾도시·산업화가 가속화된 사회적 맥락에서 우리들의 진정한 삶을 갈구하는 장소를 표현하는 용어로 공감되고 있다. 중립지대로서의 “제 3의 장소”는 방문객들이 통과하는 관문으로 다른 사람들과 처음 인사를 나누는 곳으로 자리한다. Oldenburg, R.은 “일상의 기쁨(joie de vivre)”을 추구하는 문화가 가진 핵심적인 특징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찾았다.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는 자기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세계를 상상(되어 보기)하는 간접 경험을 통해 새로운 경험적 지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이는 자신이 겪고(experience), 알고 있는 것(knowledge)이 세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겸손함과 타자를 존중하는 의식을 불러낸다. 이처럼 무용 참여의 경험은 나와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전제된 시간을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무용 행위(체험)의 장에서 사회 형태를 배우고 동시에 자신과 다른 또 다른 독립적 개인에 대한 감수성과 책임감이 강화된다. 공동체 안에서 개별적 자아를 인식하는 과정인 커뮤니티댄스는 또 다른 독립적 개인으로서의 타인의 이해가 동반되는 관조와 통찰의 지식 경험 구조로 기능한다(한혜리, 2021a:70).

독립적인 개인들의 자기표현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게 되는 참여무용에서의 무용행위는 체화된 몸(지식력)의 경험에서 비롯된 기억 이미지로 “다른 사람과 우리 몸이 공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기분을 감지할 수”있다는 Roberts, S.(2020)의 주장은 무용 참여가 ‘자기 성찰적 상태’에 변화를 겪을 수 있음을 뜻한다.

유동하는 현대 세계를 Bauman, Z.은 ‘액체 근대(liquid modernity)’로 선언했다. 불안과 외로움은 동시대를 묘사하는 사회적 특징이 되었다. 선택지가 많아지면서 우리는 언제나 탐색 모드를 가동하며 살고 있다. 진정한 자기 모습을 마주할 수 있는 전념의 시간이 와해되고 있는 것이다. 함께(시·공간을 점유) 있지만 외로움을 맞닥고, 정치적 장치에 의해 자신이 국가 혹은 공동체로부터 보호나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은 고립과 외로움에 사람들이 휩쓸려가도록 무관심하기만 하다. 그렇기에 사회적 돌봄이 요구되고 그 해결책으로써 공공 장소의 필요성이 대두¹⁴⁾ 되고 있다.

The care collective(2021)는 돌보는 공동체를 조성하는데 네 가지 핵심 특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상호 지원, 공공 공간, 공유 자원, 지역 주민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돌보는 공동체는 공공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때의 공공 공간¹⁵⁾은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공재로 유지되고 개인의 이익에 따라 유용되지 않는 공간”(The care collective, 2020, 정소영 역, 2021:90)이라 할 수 있다.

공공 공간은 돌보는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필수요건이다. 공공 공간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고, 구성원들 간의 친목과 관계 맺음을 도모하고, 공유의 삶이 생겨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많은 공공 공간을 만들고 회복하고, 요구해야 한다(The care collective, 2020, 정소영 역, 2021:95).

¹⁴⁾ 20세기 문화정책에서부터 공공 공간으로서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지원은 지속되어 왔다. 최근 공공 공간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에는 신자유주의라는 사회 체제의 문제뿐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다 준 공간의 점유와 상실, 사유화의 문제가 있으며, 배제에 초점을 둔 도시 설계에 대한 문제의식 또한 함께 자리하고 있다.

¹⁵⁾ 여기에서의 공공 장소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교류하고 유대를 맺을 수 있는 물리적인 공유 공간, 즉 공동체 기반 시설”(Hertz, N., 2020, 홍정인 역, 2021:27)과도 궤적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정책에서도 공공 장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 많은 수의 박물관, 미술관, 극장 등이 일상성과 접근성 강화를 내세우며 다수의 사람들에게 개방되었다. 신체적, 경제적 불리함이나 결핍과 무관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 이와 같은 시대정신은 보편적 가치로서의 삶의 형식을 새롭게 전환하는 장소로 공공 장소를 변화시키고 있다. 공공 장소를 찾는 이유는 문화 향유(예술 감상)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각기 다른 개인들 간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써 더 큰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확인하게 된다.

돌봄 공동체에서 인간 행위가 갖는 의미는 자원 공유, 상호 부조 뿐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장(場, place)으로도 존재한다. 그렇기에 공공 장소가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 다른 세대, 가족, 개인, 문화가 공존하는 공공 공간은 낯선 타자를 친밀한 관계로 인식하는 환경적 토대이다. 또한 다양한 관계가 공존하는 곳에서의 무용 참여는 개별성이 훼손되지 않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인식하는 안전망이다.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모습으로 관찰(감각)하고 표현(상징)한 것을 교류(공유)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로 무용 참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친밀한 공동체는 인격이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현대사회가 신뢰하는 사회문제해결의 공적 제도이자 체제이다(한혜리, 2021a:66).

참여무용의 제도적 접근성은 공공 장소의 물리적 기능과 맥락을 같이 하며 이때의 참여 경험은 공명의 관계를 상상하는 기능으로서 공공 장소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돌봄이 가능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실천 의지에서 참여무용은 복합적 의미를 갖는다. 참여무용의 무용행위 그 자체가 갖는 공공 장소(참여의 場)로서의 기능과 실천 과정으로 참여 장소로 선택하는 행위가 그것이다.

물리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개방된 장소인 공공 공간은 다양한 개인들이 위치하며 각기 다른 체험적 지식이 펼쳐지는 곳으로 사회제도(정책)적으로 문화향유 기회가 주어지는 모든 이들에게(시설 이용자 포함) 인류 역사성 속에서의 친밀함에 동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낯선 것과 직면하기를 거부하지 않고 자기 성찰과 발전적 사고로 이끌어주는 공명(울림)을 만들어 낸다.

동시대의 돌봄은 사회 서비스 너머의 사회적 역량으로서 공동체 돌봄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능은 공공 장소를 통해 확장될 수 있다. 친밀한 공동체에서 참여무용이 존재하는 공공 장소는 공동체 돌봄의 발기 시점이 된다. 또한 참여무용의 성격은 공동체 돌봄의 기능으로 사회 체제와 관계 맺고 존재한다.

관료화, 효율화, 제도화는 산업사회의 시대 의식이었다. 이는 예술과 교육, 복지 등 사회 체제 전반에 통용되던 것으로 사회복지로서의 돌봄은 대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의 전달 체계가 표준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노동자들에게 강요되던 이동성은 자기 구성이 사적 영역에서 형성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정체성 구성 요소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탈영토화 이후 기후 위기, 팬데믹 등을 겪으면서 이러한 문제가 증폭되고 가시화되었으며 이는 곧 공적 공간으로 삶의 위치를 옮기고, 함께하는 공간과 장소로서 공공 장소의 중요성이 새롭게 해석되는 계기가 되었다. 시대 사회에 관여하는 참여 무용은 다양한 형태(방식)로 실행되고 있다. 사회와 관계 맺는 방식에 의해 무용 성격이 규정되고 설명되는 환경에서 참여무용은 참여 행위를 통한 자기 가치 실현의 기회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시대적 맥락에서 사회 서비스로서의 돌봄이 아닌 사회 체제에서 변화된 돌봄의 가치를 해석하고 참여무용에 내재된 공동체 돌봄의 의미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따라서 무용 참여의 성격과 참여무용의 접근성을 토대로 공공 장소에서 참여무용의 공동체 돌봄 의미를 사회적 돌봄과 공공 장소의 관계를 통해 고찰하였다.

참여무용의 접근성이 제도화된 사회 서비스로서의 돌봄 기능이라고 한다면, 참여자들의 무용행위(무용 참여)는 공동체 돌봄의 성격을 가지며 참여무용의 공동체 기능은 사회적 돌봄의 역할을 한다는 논의로부터 연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용 참여는 공동체 돌봄의 대안적 성격을 내포한다. 무용 참여를 통해 공유되는 삶속에서 자기 성찰적 태도로 또 다른 시스템과 질서를 상상하고 전환을 도모하는 참여무용의 잠재성이 공동체 돌봄의 역할로 자리하기 때문이다.

참여무용의 제도적 접근성은 공공 장소의 물리적 기능과 맥락을 같이 하며 이때의 참여 경험은 공감으로 작용한다. 다양한 관계가 공존하는 곳에서의 무용 참여는 개별성이 훼손되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인식하는 안정망으로 친밀한 공동체를 형성한다.

참여무용 체제에서의 무용은 공동체 돌봄의 성격을 띠게 되며 참여무용은 공동체 돌봄 기능으로 사회 체제와 관계 맺게 된다.

- 김은정(2015),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에서 공동체적 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46(2), 153-176.
- 김현경(2022),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 지성사.
- 백영경(2022), “지구의 성장이 멈추는 곳에서 돌봄이 시작된다”, **돌봄이 돌보는 세계 : 취약함을 가능성으로, 공존을 향한 새로운 질서**, 동아시아.
- 한혜리(2021a), “커뮤니티댄스의 집단성과 비경쟁적 구조의 상관성”,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2(2), 59-74.
- _____(2021b), “무용의 자기 성찰 기능과 구조”,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2(3), 47-59.
- Hertz, N.(2020), *The lonely century*, 홍정인(역, 2021), **고립의 시대**, 웅진씽크빅.
- Oldenburg, R.(1999), *The great good place*, 김보영(역, 2019), **제 3의 장소**, 풀빛.
- Roberts, S.(2020), *The power of not thinking*, 조은경(역, 2022), **뇌가 아니라 몸이다**, 소소의 책.
- The care collective(2020), *The care manifesto*, 정소영(역, 2021), **돌봄 선언**, 키네북스.
- Märtn, D.(2021), *Exzellenz: wissen sie eigentlich, was in Ihnen steckt?*, 배명자(역, 2022), **엑셀런스**, 다산초당.